
광주 '인사이트(Insight) 경제'

사단법인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61-42번지(3층)
T (062) 431-6339 F (062) 262-6340
<http://www.eccplus.co.kr>

《요 약》

▶ 경기지표

광주지역 경기확산지수는 전월과 같은 4.3을 유지함.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내수 및 소비심리는 뚜렷이 악화되었으나 그 외의 다른 지표들은 아직까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모습임.

▶ 제조업 및 수출

광주지역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6.9%로 상승했으나 전월에 기록한 14.5%에 비해 크게 못 미침. 4월 광주지역 제조업 재고순환선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14.7을 기록함. 광주지역 5월 수출액은 13억5195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2.7% 감소했음.

▶ 내수

4월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한 79.3을 기록했고, 판매액 증가율도 -6.8%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임. 4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광주지역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100을 기록함.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3.12%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함.

▶ 고용

5월 광주지역 실업률은 2.6%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 고용률은 59.7%로 전국 60.6%에 미치지 못하나 99년 고용률이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광주지역 전체 취업자는 74만9천명으로 전월대비 9천명 증가함. 연령별로는 20~29세에서 2천명, 30~39세에서 3천명, 40~49세에서 2천명, 60세 이상에서 2천명이 증가함. 50~59세는 1천명 감소함. 자영업자는 16만1천명으로 4천명이 감소했고 임금근로자는 8천명 증가한 55만4천명으로 집계됨. 특히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가 5천명, 일용근로자가 4천명 증가함.

▶ 물가 및 가계

5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1% 상승했고, 5개월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지출목적별로는 의류 및 신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 및 숙박업, 식료품·비주류음료 순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았음. 5월 광주지역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7%,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1.6% 상승함. 서구의 매매가격지수가 1.2%로 가장 높고 동구의 상승률은 0.3%로 가장 낮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3.0%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음.

▶ 가계부채

4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9,801억원으로 전년동월비 7.7% 상승함.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6.3%를 차지함. 기관별로 상호금융 52.1%, 신용협동조합 23.0%, 새마을금고 20.3%, 상호저축은행 4.3%의 비중임.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율

은 예금은행이 6.9%,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8.6%임.

▶ 투자확산지수

투자확산지수는 Fast가 9.0에서 9.7로 상승했고, Slow는 9.7로 전월과 같음. Slow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Fast 지수가 상승반전함에 따라 향후 지수의 상승이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

▶ 집중분석 - 문화와 여가생활

주말이나 휴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TV 및 DVD시청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가사일, 휴식, 사교관련일 등의 순서로 응답비중이 높았음. 광주지역은 TV 및 DVD시청, 스포츠활동, 창작적 취미의 응답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낮고, 여행, 문화예술 관람, 자기개발, 가사일, 휴식, 사교관련일의 응답비중이 높았음.

이러한 여가활용의 만족도에 있어서 광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다는 응답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광주지역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음.

여가활용이 불만족인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으며, 광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부담보다는 시간 부족과 건강·체력 부족을 이유로 든 비중이 높았음.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서는 여행이라는 응답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광주지역은 여가활용에 있어 여행을 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던 만큼 타 지역에 비해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응답비중은 낮았음. 반면, 문화·예술 관람은 현재 여가활용과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모두에서 응답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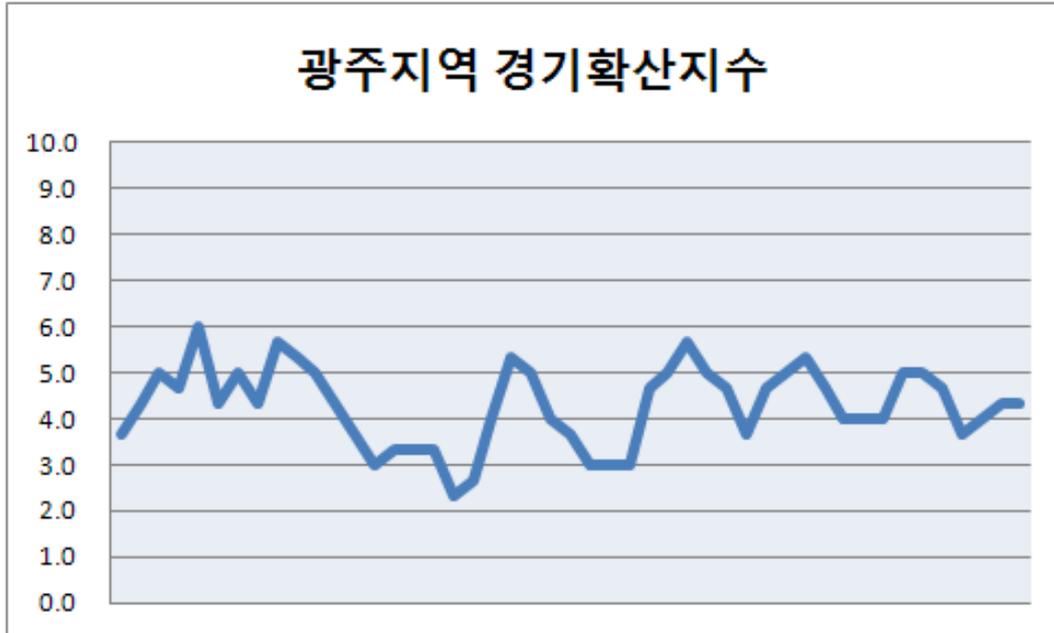
여행에 관해 광주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80%가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고 했고, 평균 여행횟수도 5.1회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음. 반면,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은 13.1%로 타 지역에 비해 낮았음. 즉, 여가를 여행으로 많이 활용하는 광주지역은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당일여행의 비중도 높았음.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부문에서 광주지역은 지난 1년간 관람 경험이 71.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데다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응답한 비중도 높아 이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연주회, 공연, 영화를 관람하는 비중은 타 지역에 비해 낮지만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을 하는 비중은 높았음.

정리하면, 사람들은 여가를 주로 TV시청, 가사일, 휴식 등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사교활동, 여행, 문화예술 관람 등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은 좋아졌지만 현재 여가활용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이 높은 비율로 꼽힌 가운데 광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을 좀 더 하고 싶어 했음.

1. 경기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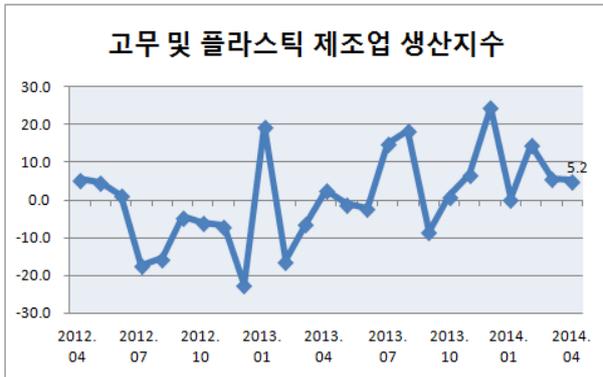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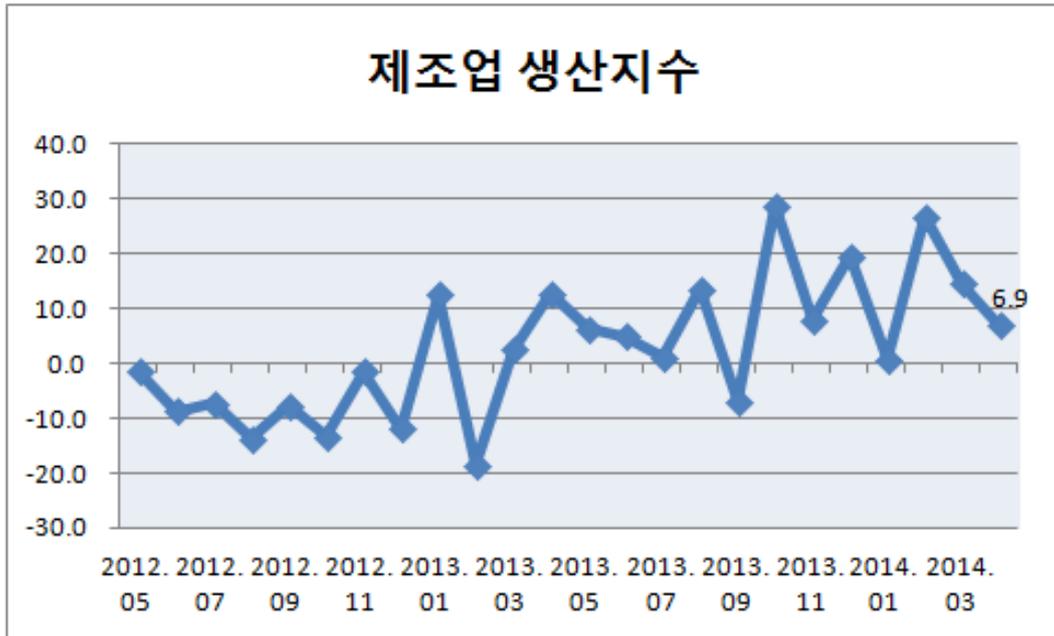
- 광주지역 경기확산지수¹⁾는 전월과 같은 4.3을 유지함. 세월호 참사로 인해 내수 및 소비심리는 뚜렷이 악화되었으나 그 외의 다른 지표들은 아직까지 크게 영향 받지 않은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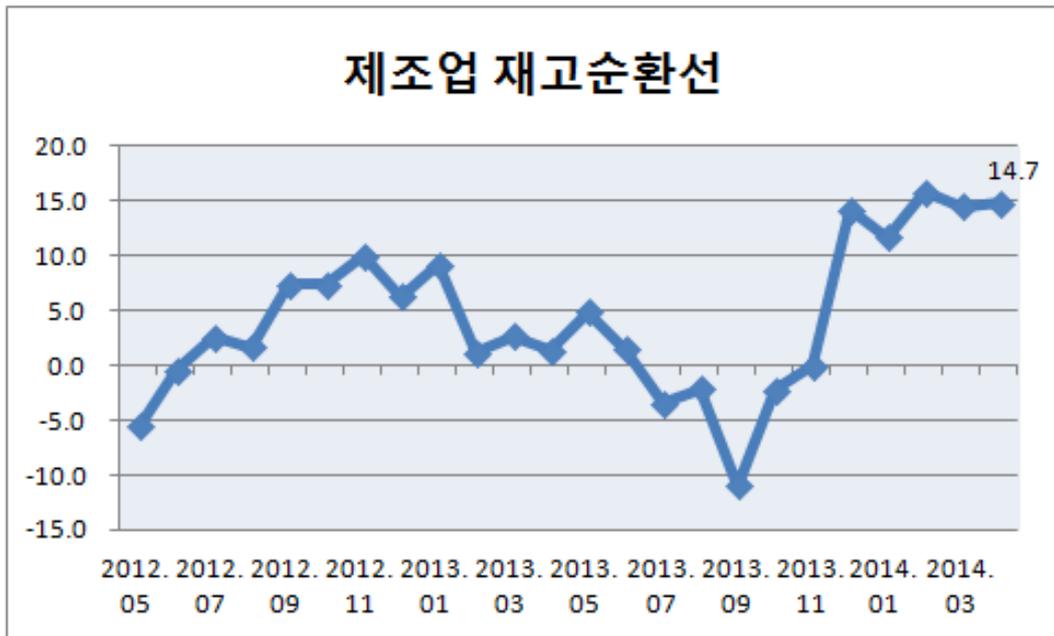
2. 제조업 및 수출

- 광주지역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비 6.9%로 상승했으나 전월에 기록한 14.5%에 비해 크게 못 미침. 고무제품과 자동차 제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5.2%, 18.6% 상승했으나 상승률은 전월보다 다소 둔화됨. 전자부품 제조업 생산지수는 -11.7%로 4개월째 감소했고, 전기장비 제조업 생산지수는 -4.6%로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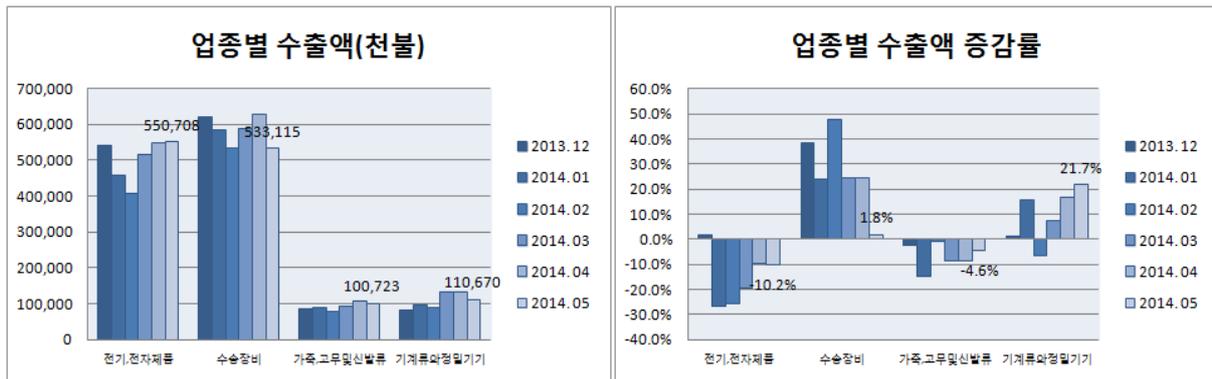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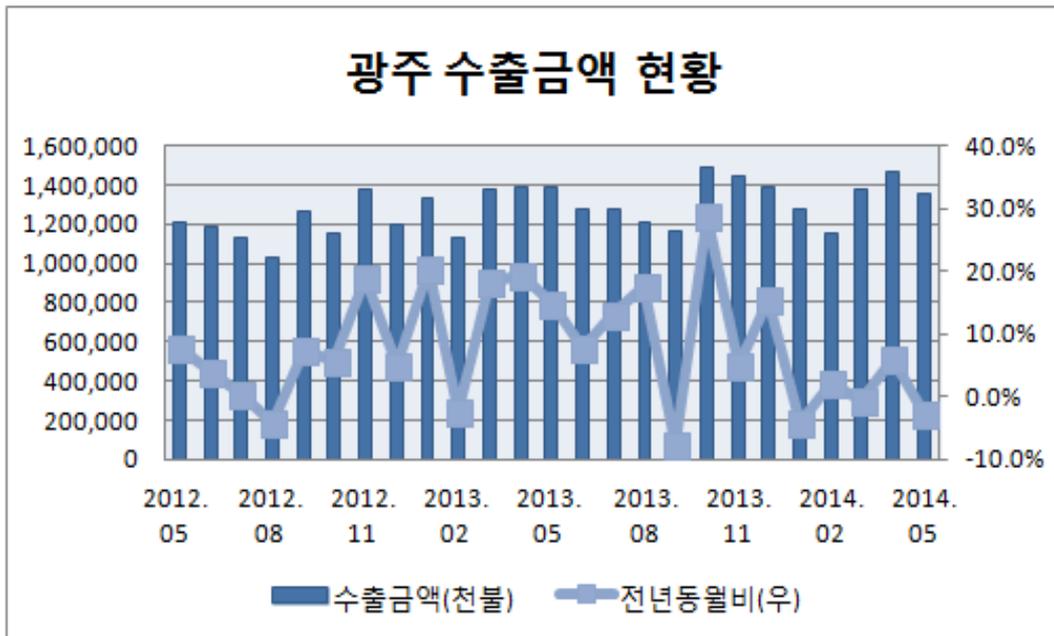
1) 광주지역 경기확산지수는 광주지역의 경기 동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입니다. 경기확산지수는 생산·수출·내수·금융 등 각 분야의 다양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공표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 4월 광주지역 제조업 재고순환선은 지난달보다 소폭 상승한 14.7을 기록함. 최근 고무제품과 자동차 제조업은 출하증가율이 줄어 들고 재고증가율이 늘어나면서 재고순환선이 둔화되는 모습임. 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제조업은 출하증가율이 늘어나진 않지만 재고증가율이 크게 낮아지면서 재고순환선이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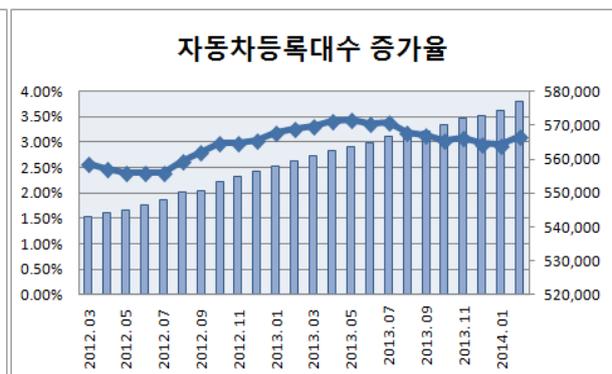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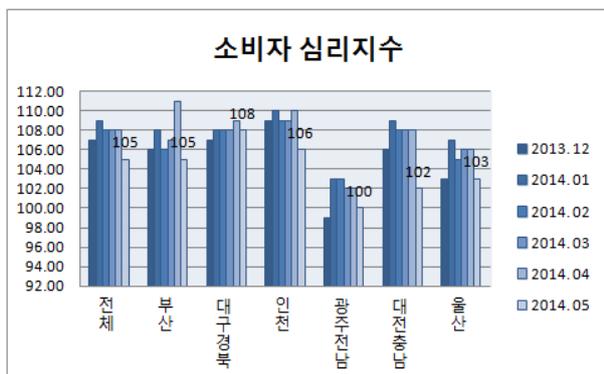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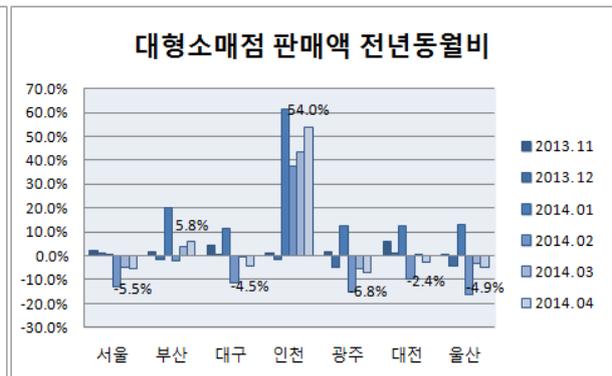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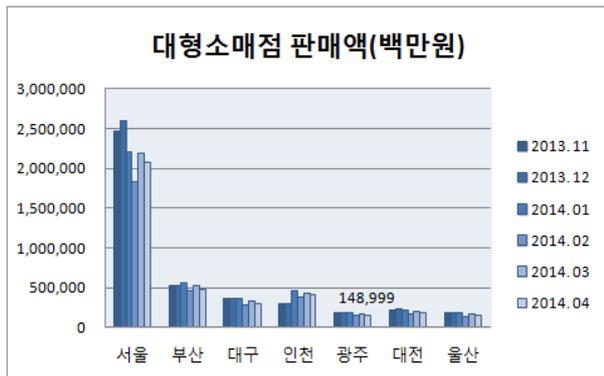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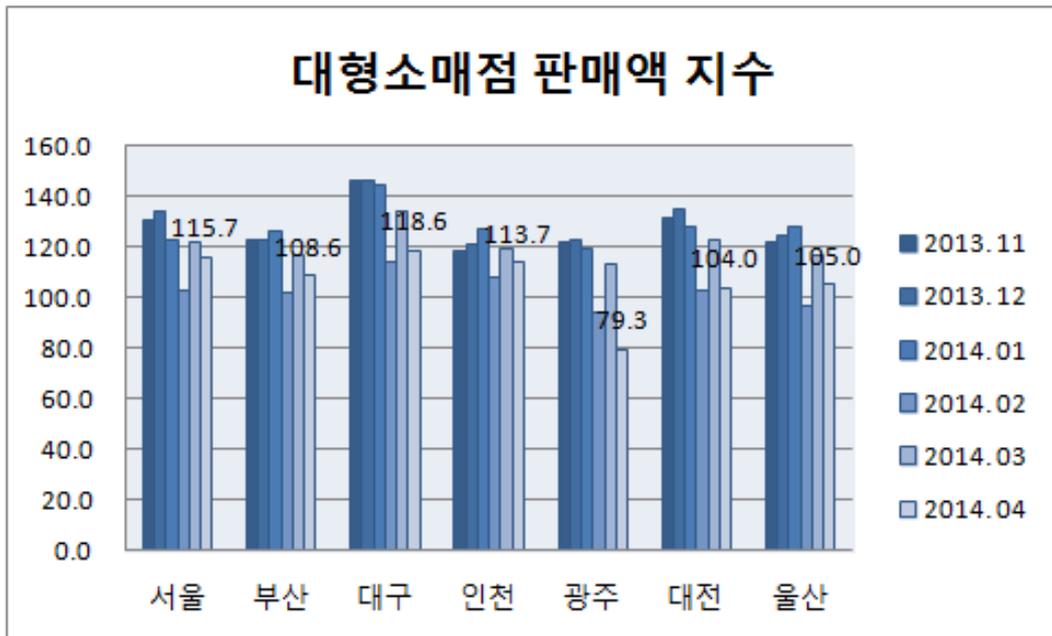


□ 광주지역 5월 수출액은 13억5195만 달러로 전년동월비 -2.7% 감소했음. 전기·전자제품은 5.5억달러를 수출해 수송 장비(자동차 제조업)를 앞질렀으나 수출증가율은 -10.2%를 기록함. 수송 장비(자동차 제조업)가 지난달에 비해 1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5.3억 달러를 수출했고 전년동월비 증가율도 24.6%에서 1.8%로 크게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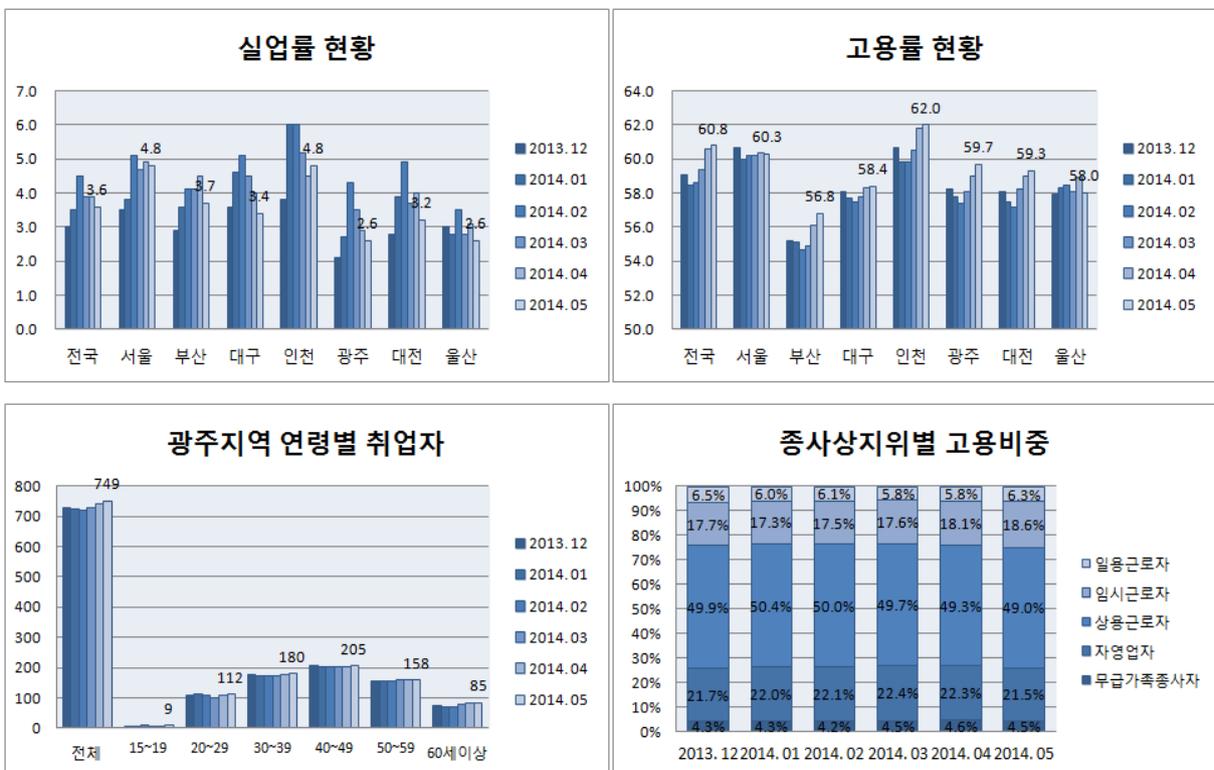
3. 내수

-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내수지표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임. 4월 광주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크게 하락한 79.3을 기록했고, 판매액 증가율도 -6.8%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임.
- 4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광주지역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100을 기록함.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3.12%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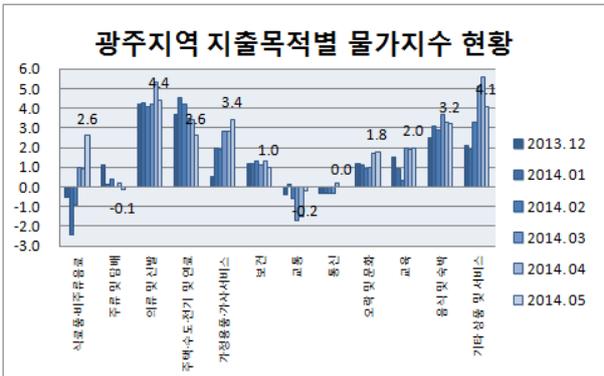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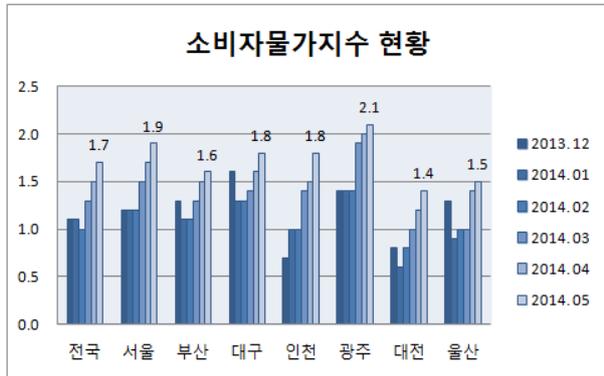
4. 고용

- 5월 광주지역 실업률은 2.6%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음. 고용률은 59.7%로 전국 60.6%에 미치지 못하나 99년 고용률이 집계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임.
- 광주지역 전체 취업자는 74만9천명으로 전월대비 9천명 증가함. 연령별로는 20~29세에서 2천명, 30~39세에서 3천명, 40~49세에서 2천명, 60세 이상에서 2천명이 증가함. 50~59세는 1천명 감소함.
- 자영업자는 16만1천명으로 4천명이 감소했고 임금근로자는 8천명 증가한 55만4천명으로 집계됨. 특히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가 5천명, 일용근로자가 4천명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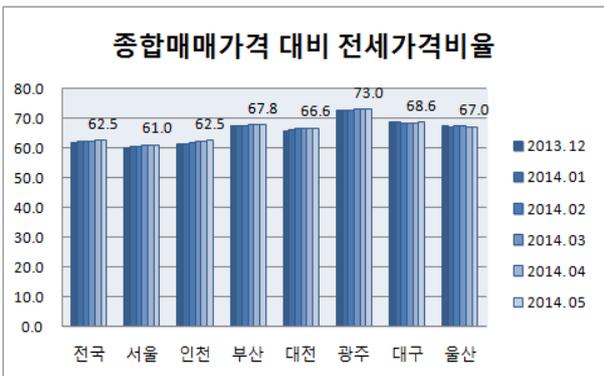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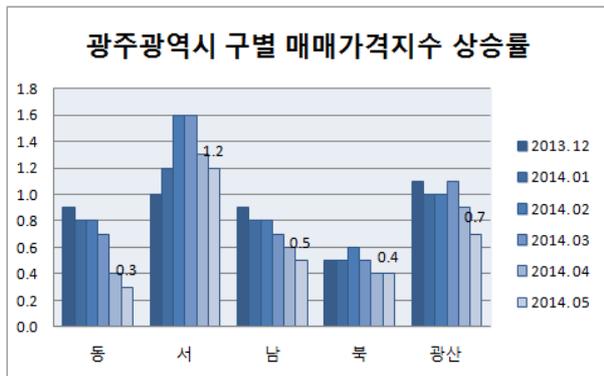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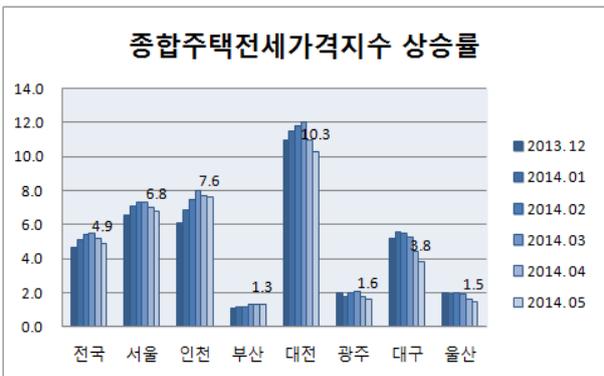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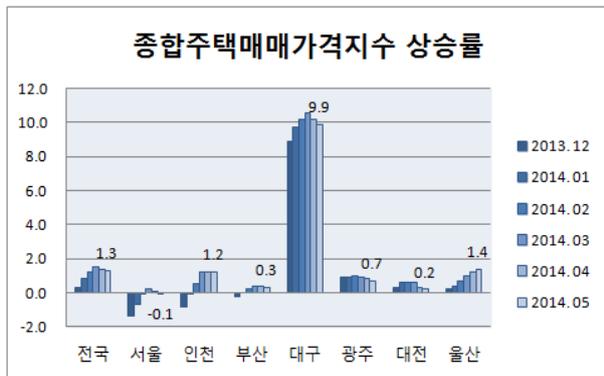


5. 물가

- 5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1% 상승했고, 5개월 연속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지출목적별로 보면 의류 및 신발, 기타 상품 및 서비스,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음식 및 숙박업, 식료품·비주류음료 순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았음.



□ 5월 광주지역 종합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0.7%,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는 1.6% 상승함. 서구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1.2%로 가장 높고, 동구의 상승률은 0.3%로 가장 낮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73.0%로 주요 광역시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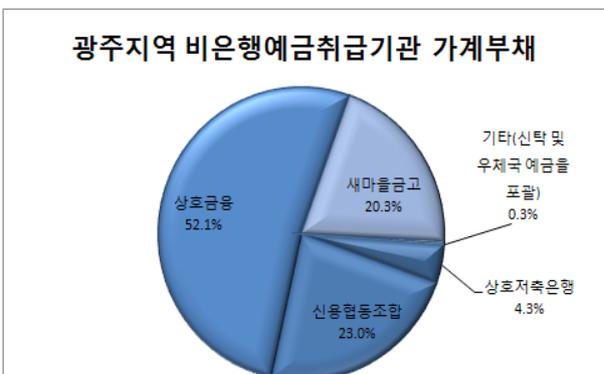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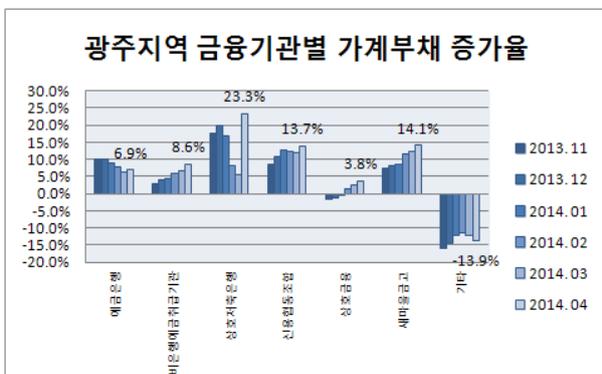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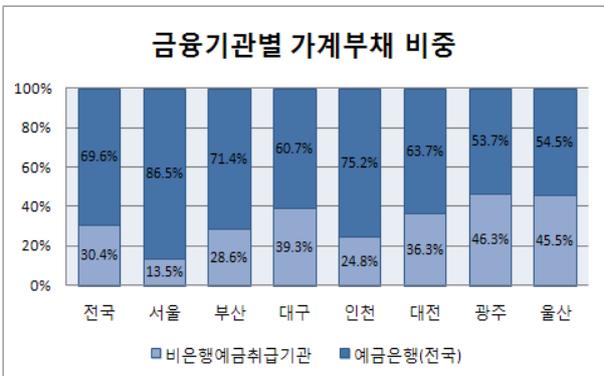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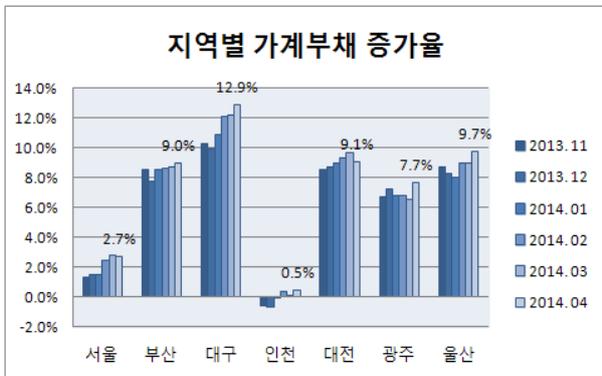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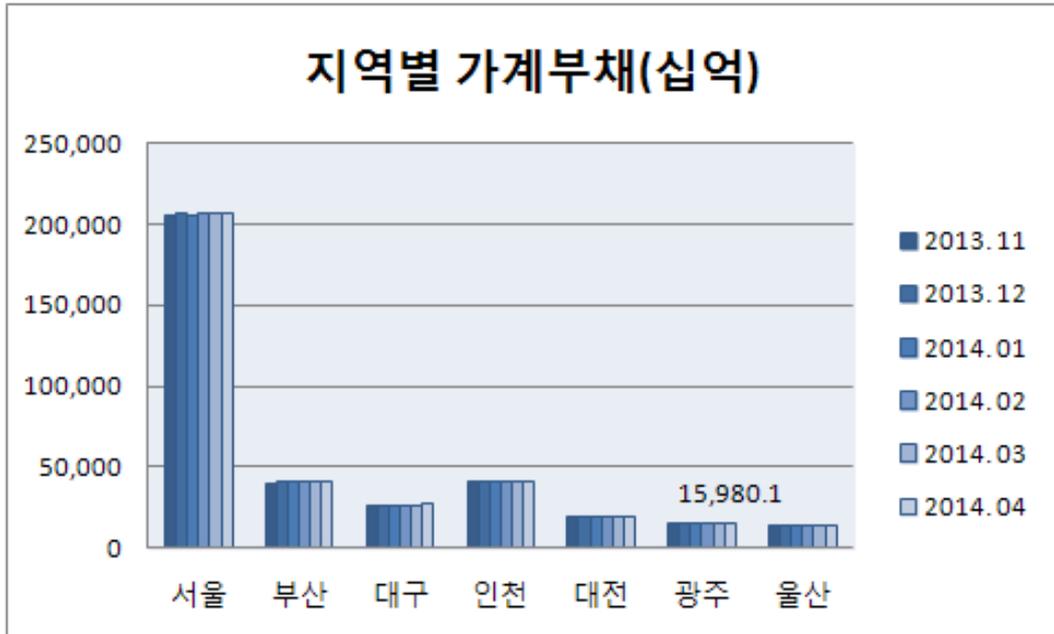


6. 가계부채

- 4월 광주지역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는 15조9,801억원으로 전년동월비 7.7% 상승함. 이 중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46.3%를 차지함.
- 기관별로 각각 상호금융 52.1%, 신용협동조합 23.0%, 새마을금고 20.3%, 상호저축은행 4.3%의 비중을 차지함. 금융기관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예금은행이 6.9%, 비은행예금취급기

관이 8.6%임.

- 타 지역에 비해 전체 가계부채액은 낮은 수준이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²⁾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임.



2) 금융권을 제외한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7. 투자확산지수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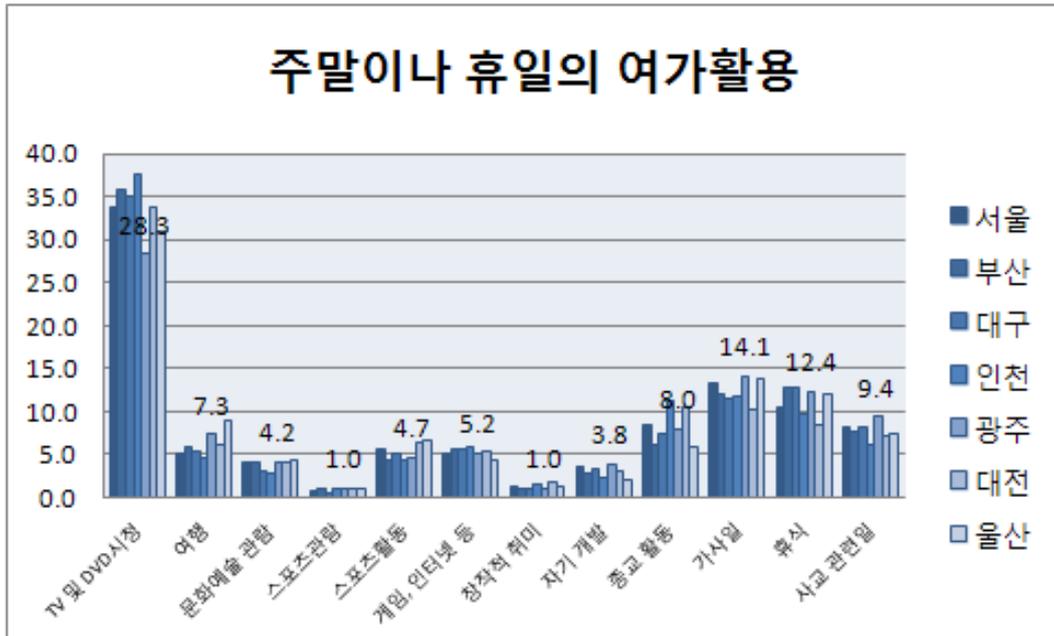
- 투자확산지수는 Fast가 9.0에서 9.7로 상승했고, Slow는 9.7로 전월과 같음. Slow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Fast 지수가 상승반전함에 따라 향후 지수의 상승이 이어질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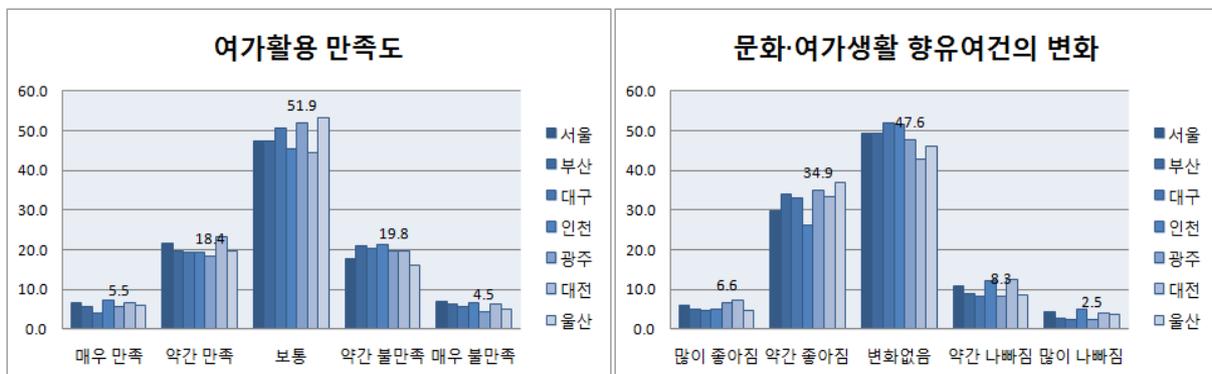
3) 투자결정에 있어 도움이 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제 및 금융시장 지표들을 선정해 만든 확산지수입니다. 투자확산지수의 상승 시 투자를 결정 또는 확대, 하락 시 투자를 철회 또는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2014년부터 빠르고 강한 신호를 나타내는 Fast 지표, 그리고 Fast보다 느리지만 신호 실패가 적은 Slow 지표로 나누었습니다.

8. 집중분석 - 문화와 여가생활⁴⁾

- 주말이나 휴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TV 및 DVD시청이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가사일과 휴식, 사교관련일 등의 순서로 응답비중이 높았음. 광주지역은 TV 및 DVD시청, 스포츠활동, 창작적 취미의 응답비중이 타 도시에 비해 낮고, 여행, 문화예술 관람, 자기개발, 가사일, 휴식, 사교관련일의 응답비중이 높았음.



- 이러한 여가활용의 만족도에 있어서 광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다는 응답보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음.
- 문화·여가생활 향유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광주지역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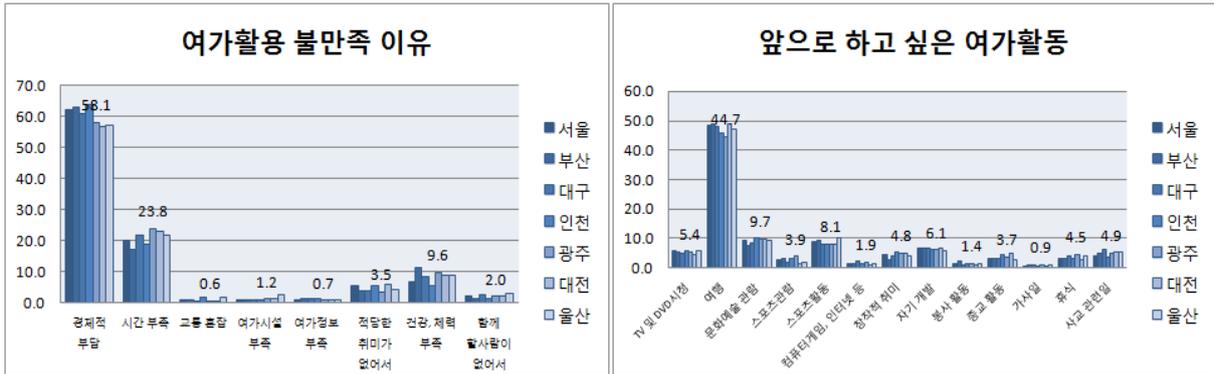


- 여가활용이 불만족인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4)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비중이 높았으며, 광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경제적 부담보다는 시간 부족과 건강·체력 부족을 이유로 든 비중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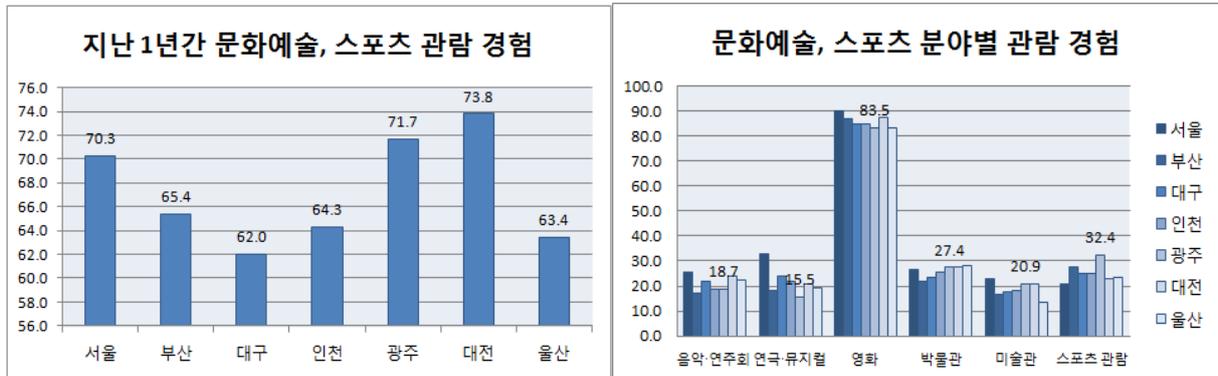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에서는 여행이라는 응답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광주지역은 여가활용에 있어 여행을 한다는 응답비중이 높았던 만큼 타 지역에 비해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응답비중은 낮았음. 반면, 문화·예술 관람은 현재 여가활용과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모두에서 응답비중이 높았음.



- 여행에 관해 광주지역의 경우 응답자의 80%가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이 있다고 했고, 평균 여행횟수도 5.1회로 타 지역에 비해 높았음. 반면, 해외여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3%,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은 13.1%로 타 지역에 비해 낮았음. 즉, 여가를 여행으로 많이 활용하는 광주지역은 해외여행보다 국내여행을 선호하고 이에 따라 당일여행의 비중도 높았음.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부문에서 광주지역은 지난 1년간 관람 경험이 71.7%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데다가,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응답한 비중도 높아 이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연주회, 공연, 영화를 접하는 비중은 타 지역에 비해 낮지만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관람을 접하는 비중은 높았음.



- 정리하면, 사람들은 여가를 주로 TV시청, 가사일, 휴식 등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사교활동, 여행, 문화예술 관람 등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음. 문화·여가생활 향유 여건은 좋아졌지만 현재 여가활용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음.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이 높은 비율로 꼽힌 가운데 광주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을 좀 더 하고 싶어 했음.